

충청남도-황해남도 유교문화교류 모색

율곡학과 기호유학을 중심으로

이치억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Contents

- 울곡과 해주
- 해주의 울곡 관련 유적
- 충청남도-황해남도 유교문화 교류 방안

1. 율곡과 해주

율곡 이이(1536~1584)의 위상



- 구도장원공
- 현실 개혁적 정치가/사상가
- 한국 성리학의 양대 산맥의 하나인 기호유학의 종장
- 서울/경기, 강원, 황해도, 기호 지방을 아우르는 광범한 지역성

율곡의 활동무대와 지역성



- 강릉 : 외가(오죽헌), 탄생~유년시절을 보냄
- 서울 : 청년기의 학문 수행 시, 관직 재직 시기에 거주
- 파주 : 본가(율곡리), 부모 삼년상 시묘, 때때로 낙향
- 해주 : 처가 인근(석담리), 사직 후 낙향, 강학과 저술
- 청주 : 약 9개월 청주목사로 재직 (1571.6~72.3)

율곡 연보의 해주 관련 기록

- 1570년(34세) 10월, 병으로 사직하고 해주 야두촌으로 돌아간다. [경향의 선비들 중 따라가 배우는 자가 많았다.]
- 1574년(39세) 10월, 황해도관찰사에 제수되다.
- 1576년(41세) 10월, 해주 석담으로 돌아가다. [먼저 청계당(聽溪堂)을 세웠다.]
- 1577년(42세) 정월, 석담으로 돌아와 종족을 모으고 <동거계사(同居戒辭)>를 짓다. 사마광의 삭망의를 행하다. [사당을 세우고 정침을 두었으며, 만형수 곽씨로 하여금 신주를 모시고 와서 살며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마침내 형제와 조카들이 함께 살게 되었다.]
12월, 『격몽요결』이 완성되다. 향약 및 사창(社倉)을 의논하여 세우다.

율곡 연보의 해주 관련 기록

- 1578년(43세)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세우다. [정사는 청계당의 동쪽에 있다. 고산구곡가를 짓다.]
3월에 대사간에 임명되어 상경했다가, 겨울에 해주로 돌아간다.
- 1583년(48세) 7월, 율곡리에서 석담으로 가다.
- 1584년(49세) 정월 16일, 서울 대사동 집에서 병환으로 별세하다.

2. 해주의 율곡관련 유적

청계당 (聽溪堂)



- 황해남도 벽성군 석담리 소재. 울곡이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와 처음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소현서원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 집안 가운데 두칸에는 마루를 깔고 양옆 두칸에는 구들을 놓았으며 바깥 앞면에는 너비 1.55m의 툃마루를 깔았다.

은병정사(隱屏精舍)



- 청계당 동쪽에 세운 서재이다. 조선 선조 10년(1577) 율곡이 세워 학동들을 가르치는 한편,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저술하고 해주향약을 만들어 시행한 곳이다.

소현서원(紹賢書院)



- 북한의 국보 문화유물 제79호로 지정되어 있다. 율곡이 1578년에 은병정사를 지어 주자의 영정을 모셨다. 율곡이 타계한 지 2년 후인 1586년(선조 20)에 사당을 건립하면서 ‘석담서원’으로 부르며 율곡을 비롯한, 주자, 정암, 퇴계를 모셨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1604년(선조 38) 관찰사 정양호(鄭陽浩)와 목사 김상준(金尙騫)이 복원하였다. 1610년(광해군 2)에 ‘소현(紹賢)’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우계·사계·우암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고산구곡(석담구곡)



- 석담에 있는 명승지. 은병정사를 중심으로 한 상·하 석담천의 아홉 구비 풍광이 뛰어나 1575년(선조 8) 율곡이 구곡의 이름을 붙이고, <고산구곡가>를 지었다.

고산의 아홉 굽이 계곡
 세상 사람들이 모르더니
 내가 와 터 닦고 집 지으니
 벗들 모두 모여드네
 무이산은 여기서 상상하며
 소원은 주자를 배우는 것

高山九曲潭
 世人未曾知
 誅茅來卜居
 朋友皆會之
 武夷仍想像
 所願學朱子

고산구곡 현황

-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946년 10월 부인 김정숙과 아들 정일(당시 4살)을 데리고 석담구곡을 처음 방문한 이후 3차례나 다녀갔고, 김정일 위원장도 여러 차례 찾아와 이곳을 문화휴식터로 가꿀 것을 지시
- 북한은 이 석담구곡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마치고 2003년 11월 5일 준공식을 가짐
- 재정비 기간에 병풍식 안내판, 25개소의 휴식터, 휴양각, 문화회관 등 각종 편의시설과 소형 발전소가 건설되고 청계당, 소현서원 등 문화유적이 복원됨

〈출처 : NK조선 '황남 벽성 석담구곡' 2003년 11월 7일〉

3. 충청남도-황해남도 유교문화교류 방안

- 학문적 교류
- 인적 교류
- 관광개발·유적답사

참고: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대한 북한의 평가

정성철, <조선철학사-이조편>, 좋은책, 1988

- 김시습 : 주자성리학과 대립되는 독창적인 유물론적 자연관을 내놓은 15세기의 진보적 철학자이며 문학가이다. 그는 서울 몰락 양반 출신으로서 일생을 벼슬을 하지 않고 집권한 통치배들에 대한 원한과 반항심을 품고 방랑생활을 하면서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다. (97쪽)
- 서경덕 : 주자성리학의 관념론 철학을 반대한 16세기의 대표적인 유물론 철학자이다.(111쪽) 서경덕은 기일원론적 유물론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실학파 철학사상가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122쪽)
- 조광조 : 조광조의 이 모든 주장과 대책은 물론 봉건적 신분등급제도나 착취제도 자체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제도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서 농민들의 상대적 생활 안정과 지위의 개선을 가져오게 하는 긍정적 작용을 하였다.(49쪽)

- 퇴계 : 이황은 16세기 중엽에 활동한 반동적인 주자 성리학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이조 봉건지배계급의 보수적이며 반동적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주자 성리학의 유일적 지배를 위하여 투쟁한 객관관념론자였다.(59쪽)
- 율곡 : 그의 철학사상은 유물론적 요소도 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자성리학적 객관적 관념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이조봉건통치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사상의 합리적인 부분은 그후 진보적 철학가들에 의하여 계승발전 되었으며 우리나라 철학유산을 풍부히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74~75쪽)

학문적 교류

- 1980년대 후반 북한의 철학사가 남한에 소개되며, 철학연구회, 동서철학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연세대 국학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철학사 연구 소개 및 분석이 이루어짐
- 90년대 후반, 연세대 국학연구원에서 ‘통일 한국 철학사상 진로와 세계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종합 가능성을 시도.
- 철학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금기로 인해 학술적 교류는 용의하지 않으나, 북한에서의 율곡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이 고무적임
- 실질적 교류를 위해서는 북한의 철학사 서술방식인 관념론/유물론 대립의 구도, 남한의 주리/주기, 성리학/실학 대립적 구도에서의 논의를 지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성 대두

인적 교류

- 북한은 유교를 봉건적 사회정치사상으로 간주.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반동적 역할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방해가 된다고 결론짓고 이를 신봉하는 것을 금기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사회·문화 전 분야에 유교적 사고와 행위 규범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그 본질과 전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맥을 이어내려 오고 있다. (이현경, 「북한사회와 유교문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6집, 249쪽 참조)
- 북한을 방문했던 유림 인사의 진술에 따르면, 예의 차원일지 몰라도 유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유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함. 유교가 공식적인 종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집집마다 차례와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지키고 있음.(유교신문 2015년 11월 12일자, 「대담 - 성균관 유림이 만난 북한사람들」)
- 현재로서는 민간인의 교류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추후 남북관계의 추이에 따라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관광개발·유적답사

- 율곡과 그 후손이 세거하고 있는 벽성군 고산면 석담리의 고산구곡·청계당·은병정사·소현서원 및 율곡의 종가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 특히 석담에서 완성된 『격몽요결』과 「해주향약」, 「고산구곡가」에 얽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황주(黃州)에서 있었던 율곡 만년의 유지(柳枝)와의 로맨스도 일반인에게 보급 가능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음